

1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p>	<p>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권, 신용평가사, 회계법인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조정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건설사는 일단 100대 건설사를 포함한 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금융권 총 채무액 500억원 이상인 곳이고, 조선사는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중 26개 업체임. 건설사의 세부평가 지표는 모두 22개. 이중 부채비율 배점이 10점으로 가중치가 가장 높음.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만점인 10점을 받게 됨. 이어 100~200%는 B, 200~300%는 C, 300% 이상은 D를 받게됨. B~D가 각각 점수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연합회측이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 전체 상장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80%임. 조선사의 기준은 선박건조 경험이 8점 배점으로 가장 높음. 이밖에 수주잔고대비 RG발급률, 건조설비 완료여부 등이 주평가 요소임.</p>
<p>뉴욕증시, 악몽의 한해 끝났다 [다우: 8,776.39pt (+ 1.25%)]</p>	<p>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2008년 증시가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2009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요 지수들은 이틀째 반등하며 2008년을 마감했음. 매주 고용불안을 촉발하며 올 한해 내내 뉴욕증시를 괴롭혔던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이날만큼은 월가의 전망치와 달리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증시 랠리에 일조했음.</p>
<p>주간 실업수당 신청 `기대 이상`..악동에서 증시 반등 효자로</p>	<p>지난 1년간 매주마다 애물단지 역할을 했던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마지막날은 `악동짓` 대신 증시 반등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음.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27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49만 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6년래 최대를 기록했던 전주(58만 6,000건)을 크게 하회했을 뿐 아니라 8주만에 50만건 밑으로 떨어진 수치임. 크리스마스 휴일이 영향을 미쳤지만, 당초 브리핑닷컴이 집계한 월가의 전망치인 57만 5,000건에도 크게 하회할 정도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임.</p>
<p>지맥 채무스왑 완료..당초 목표치엔 미달</p>	<p>GM의 금융자회사인 지맥(GMAC)은 이날 전체 380억달러의 채무중 GMAC의 기존 채무 175억달러와 자회사 레지덴셜캐피탈(ResCap)이 발행한 채무 37억달러 등 총 212억달러의 채무스왑(debt swap)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GMAC는 당초 380억달러중 75%선을 채무스왑 목표로 잡았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했고, 이에 따라 GMAC가 추진중인 은행전환을 위해선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함. 다만, 미 정부가 지난 29일 60억달러의 구제자금 지원을 결정한데 이어 이번 부채조정까지 이루어져 채무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음.</p>

제목	주요 내용
中 부동산 시장 바닥쳐나	중국 부동산거품 붕괴의 진원지인 선전시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최근 중국 정부의 잇단 부양책에 힘입어 반등.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중국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지배적.
국제유가, 러시아발 재료로 폭등 [WTI: \$44.60 (+ 14.27%)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을 경고한 점이 유가 폭등의 재료가 되었음. 러이사는 연체 이자 4억 5,000만 달러를 포함해 지난 11월과 12월분 가스채무 약 20억 달러를 갚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위안화 환율 올해도 절상 지속	지난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가 주춤해진 위안화가 올해도 절상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홍콩문화보는 지난해 6.88% 가까이 절상된 위안화가 올해 달러 평가절하가 가속화되면서 계속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
日, 고용 뉴딜정책 추진	일본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 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의료, 노인 간호 분야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직업별 고용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환율 역외시장에서 폭등	역외 달러·원 환율이 100원 가까이 급등해 새해 벽두부터 환율에 비상이 걸렸음. 30일(현지시간) 미 뉴욕역외시장(NDF)에서 1개월물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폭등한 1,338원으로 거래를 마쳤음. 이는 전날 서울외환시장의 현물환 증가 1,259원 50전보다 78원 50전이나 높은 수준임.
삼성건설, 10억불 규모 두바이 개발사업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조 3,800억원(10억8,000만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팜 주메이라 빌리지센터` 개발 사업을 단독 수주했다고 31일 밝혔음. 이마르와 함께 두바이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나킬사가 발주한 이번 사업은 두바이 3개 인공섬 중 가장 첫번째 사업인 팜주메이라 입구에 53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47층 높이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비롯 쇼핑몰, 백화점, 극장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12월 물가 상승률 4.1%로 둔화..3%대 가시권	소비자물가가 국제 유가의 하락 행진 등에 힘입어 4%대 초반까지 떨어졌음. 그러나 변동성이 심한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 3%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